

법회안내

부천 석림사(032)663-7771

초하루 신장 기도 및 법회 매월 1~3일 (음) 오전 9시 30분 악사제일 3일 기도 및 법회 ○ 주지 영담스님 매월 3~10일(음) 오전 9시 30분 인동기도 및 포살법회 매월 15일(음) 오전 10시 지장제일 불공 및 지장경 독송 매월 18일(음) 오전 10시 관음제일 불공 및 지장경 독송 매월 18일(음) 오전 10시 관음제일 불공 및 보문경 독송 매월 24일(음) 오전 10시 인요가속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배아양명정진기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 10시 학생화합회(중·고등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향년화합회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범종화합회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 2시



광주 중심사(082)226-0107

초삼일법회 매월 3일(음) 오전 10시 30분 초이레법회 매월 7일(음) 오전 10시 30분 지장제일법회 매월 18일(음) 오전 10시 30분 관음제일법회 매월 24일(음) 오전 10시 30분



천중사(02)914-3568

초하루 범종법회 매월 1일(음) 오전 11시 보살인공법회 매월 15일(음) 오전 11시 지장기도 및 가족법회 매월 18일(음) 오전 11시

각경사(02)387-3510

산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 10시 정가법회 매월 15일(음) 오전 10시 지장제일법회 매월 18일(음) 오전 10시 관음제일법회 매월 24일(음) 오전 10시 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청년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광주 금문회관(082)224-0175

중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정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원효사도교원

(0416)55-2551 어린이 성불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흥버니 불교학생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열린 불교학생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죽음의 재' 다이옥신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5일 세계환경의 날 세계 각국에서 환경·생태계 보존 및 복구에 지극한 관심이 한 목소리를 낸 것과는 대조적인 현실이다. 다만 환경부가 16일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결과'를 향후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나 배출능도가 높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더욱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우리 몸이 돌아 아님(身土不二)>을 '심정정 국토청정(心淨國土淸淨)'으로 강조하는 불교의 환경사상을 경전과 조사어록에서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끝낼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

이렇게 들었다

를다음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법구경 화합품> ■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일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 지는 것이다. <유미경> ■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할지니라. 세세생생 몸을 받아

상주하는 법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쳐 방생하게 하고 만일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면 마땅히 방편을 구호하여 그 고난을 풀어주며, 항상 널리 교화하여 불교를 강설해 증생을 구제해야 하느니라. <법망경> ■ 수행자는 웃입는 것에 대하여 세가지 웃만 가지며, 먹는 음식에 대하여 때 아닌 때 먹지 않으며, 머무는 곳에 대하여 나무 밑에 거한다. <불설심이두터경> ■ 저 불국토에는 목욕할 수 있는 호수가 수없이 있다. 그 호수에는 여덟가지

공덕을 갖춘 물(八功德水)이 철철 넘치고 맑은 향기가 풍겨 마치 감로수와 같은 느낌이다. 호수가에는 전단나무가 서 있는데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는 잎과 꽃이 드리워져 있다. 호수 속에는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흰 연꽃이 눈부시게 피어 물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원죄에 넘쳐 마음의 때가 맑아 깨끗해진다. <무량수경> ■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

지 말라... 배·싱아·뽕 같은 것으로 바늘 등을 만들지 말며,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 눈앞의 꽃이로구나, 산도 물도 이 땅도. 다 그런거지, 보이고 들리는 것들. 맑고 맑구나 보고 듣는 이것이야. 세계마다 티끌마다 오, 아미타불, 오, 법왕(부처님의 다른 이름)의 몸이여. <니옹화상어록> ■ 일체의 유정은 무량한 수명을 갖게 하라. 항상 즐겁게 살고 죽음이란 말마져도 없어지게 하라. 또 모든 곳은 부처님과 불자들이 가득하여 법음이 언제나 즐거움과 함께 울리게 하라. 모든 생류들에게 새 나무 광선 허공으로부터 법음의 울림이 철사이 없이 들리게 하라. <보리행경>



◇ 조계사는 12일부터 1년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화그리기 강화를 개설한다. 사진은 동방불교대 불교미술과 학생들이 단청실습을 하는 장면.

은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에 신청하면 된다. (051)816-2241

장엄불화 그리기 강좌

불교하면 떠올리는 불보살들의 원색찬란한 장엄불화를 떠올린다. 법당이나 법회에서 의식을 장엄하는 불화를 직접 그려보자. <사진> 불교미술을 배우면서 불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조계사(주지 현근)는 불화그리기 강좌를 법성거사(단청문화재 수리기술사 146호)의 강의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조계사 제6강의실에서 마련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7만원. (02)720-1390

대왕암·기림사 문화기행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경주

나의 수행일기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아량으로 대할 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조금은 더 부드럽고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화두 아닌 화두를 안고 한때 자기 마음관리를 잘못한 결과로 법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인간 수련도량, 구치소에서 많은 부처님(재소자)들과 지내는 30여년의 세월이 어찌던 내 인생에 정해진 길을 걸어도 같은 길도 이곳이 바로 내 수행의 수행도량이었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다. 처음에는 그렇게 두렵고 경계심이 앞섰던 그 많은 재소자들이 차츰 알고보니 저마다 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방황하고 고뇌하는 모습들에 모두다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관장하고 알려져 현재 전국 어디에나 직원불자모임이 결성되었고 연합모임까지 결성된 것도 작은 보탬의 하나다. 거기에 교정시설 경비를 위해 배치된 현역경비교도대원들이 복무하는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에도 지난 89년 불자대원들로 '구도회'라는 수행모임을 만들어 매주 여는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에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많은 불자들이 함께 신심을 키워 왔음을 부끄럽게나마 수행의 큰힘으로 느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이곳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때를 만날 때마다 별 수없이 부처님께 매달린다. 85년 집에 오면 부처님전에 꿇어앉아, "부처님! 부처님의 광명이 지금 마음의 길을 잡아 줄 일고 방황하는 이들,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비추도록 해야 하나요?" 간절히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활짝 웃으시며 답을 주셨다. '네 스스로 찾아라' 하시는 것이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지도를 삼음만한 좋은 글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1년여에 걸쳐 다듬고 다듬어 만든 것이 팔정도에 맞추어 만든 여덟마디의 글 '나를 다스리는 지혜'였다. 86년 여름에 만들어진 이 글은 법무부에서 재소자교화자료로 채택,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재소자에게 8절크기로 부쳐되어 많은 재소자들이 마음의 경주로 삼게하였다. 심청정국토청정(心淸淨國土淸淨)의 부처님 사상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밝은마음 밝은사회'를 주제로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잠입하게 전하는 힘이 되고자 이 무거운 육신도량부터 청정하고 밝게 가꾸려 오늘날 부처님전에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열어나간다. <사단법인 법사 이사장>

"재소자들의 '집' 나누자" 발원

전국 교도소 직원 불심회 결성 '산파역'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듯이 이들이 불행중에 또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수없이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었던 일. 늘 상담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던 사형수들을 어느날 갑자기 사형장에서 영영 작별을 하고나서 또 그 가족들의 절규를 보며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 며칠씩 숙애했던 일. 환경의 탓에, 업보의 끈에 끌려 원하지 않은 이곳에 온 많은 이들과 그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을 보며 이들에게 내 생이 아닌 바로 현생에서 지옥과 극락을 보고 이들에게 불연을 맺어주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여 이곳에 관세음보살님상과 지장보살님상을 모시고 같이 기도하며 수행의 길을 밝히려고 도반들을 찾았다. 재소자신양지도, 교화를 위해서 직원불자들이 스스로 배우고 닦자는 뜻에서 86년 서대문구치소에서 직원불심회를 창립하여 좋은 반응으로 이 모임의 뜻을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에

이들,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비추도록 해야 하나요?" 간절히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활짝 웃으시며 답을 주셨다. '네 스스로 찾아라' 하시는 것이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지도를 삼음만한 좋은 글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1년여에 걸쳐 다듬고 다듬어 만든 것이 팔정도에 맞추어 만든 여덟마디의 글 '나를 다스리는 지혜'였다. 86년 여름에 만들어진 이 글은 법무부에서 재소자교화자료로 채택,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재소자에게 8절크기로 부쳐되어 많은 재소자들이 마음의 경주로 삼게하였다. 심청정국토청정(心淸淨國土淸淨)의 부처님 사상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밝은마음 밝은사회'를 주제로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잠입하게 전하는 힘이 되고자 이 무거운 육신도량부터 청정하고 밝게 가꾸려 오늘날 부처님전에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열어나간다. <사단법인 법사 이사장>

서암스님 초청 대법회

"도(道)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나." "깨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쳤다면 생활 속의 언행이 흐트러짐 없이 고요해야 한다." 前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 초청대법회가 13일에서 15일까지(3일간) 불교 중흥회관에서 개최된다. (02)744-0315

청주불방 고승초청 법회

청주불방승(지사장 각현스님)은 16일에서 19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불교방송 10층 문화센터에서 개국기념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16일 해암(조계종 원로회의의장), 17일 압도(前 조계종 포교원장), 18일 도문(대각사 주지), 19일 무진장(前 조계종 포교원장)스님 등이 초청돼 법문할 예정. 흔탁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생활속에서 불법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감로(甘露)법문으로 기대된다. (0431)211-2090

스님 장학금유한 연주회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아래 피어나는 도음의 손길. 중앙승가대학 비구니 수행관 후원회인 화엄장학회는 14일 오후 5시 충정로 문화일보홀에서 장학

신행수첩

기금마련을 위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연다. 이 공연에서 얻는 수익금은 전액 중앙승가대학 비구니수행관에서 수도 정진하는 스님들의 장학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독주회는 불자 바이올린 연주자 강형진씨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02)545-2078

살풀이 배우며 포교도

불교도 배우고 춤도 익힌다면 얼마나 멋진가. 춤을 통한 정법을 펼치고 있는 우바이무용단(단장 심산)이 1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전통민속무용의 하나인 '살풀이' 강습회를 연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법당 뒤에 마련된 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강습회는 전통무용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열린다. 우리의 한을 승화시킨 몸짓인 살풀이를 배우며 전통속에 녹아든 우리의 진정한 마음새까지 배우고 이어갈 수 있는 강습회에 동참을 원하는 불자들

지역 문화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청소년 문화유적탐사가 15일 열린다. 다양한 답사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이 계획한 이번 행사에서는 문무왕의 낯이 깃들어 있는 감은사지, 대왕암을 비롯 기림사, 경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등을 찾아 신라인의 호국정신과 환경보호의 필요성 등을 배우게 된다. 청소년과 학부모, 일선 교사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회비는 무료. (0561)771-1950

백두산·만주일대 답사

(사)한국제이티에스(JTS·이사장 법륜스님)는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제4차 역사기행을 떠난다. 이번 역사기행은 민족의 성산(聖山) 백두산과 광개토태왕비 등 고구려·발해 유적지를 답사한다. 대상은 일반인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교사, 대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이다. 동참비는 1백50만원이며 접수마감은 6월20일까지. (051)525-7264

학인모집안내

21세기 불교 최고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 7월 1일 ~ 8월 15일(후기)
2. 입학자격 : ① 대학이상 졸업자 ②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 불교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
3. 전공과목 : ① 무량의경 ② 묘법연화경 ③ 관, 보현 보살 행법경 ④ 기타, 교양특강
4. 모집구분 : ① 출강반(부산) : 수·금요일 등교 ② 통신반(전국) : 넷째 일요일 등교
5. 교육기간 : 2년(4학기) 출강, 통신반 동일
6. 졸업특전 : ① 졸업증서 수여 ② 오종법사 자격증 수여 ③ 법화경연구소 학술위원 위촉 ④ 교양대(강원) 개원시 지원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광 영 (공덕)
(우)701-600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문의 전화
대구강의실 : (053)952-8711
부산강의실 : (053)633-6224
교수 직통 : 017-501-8711

※ 자세한 입학안내서는 우편으로 청구하시면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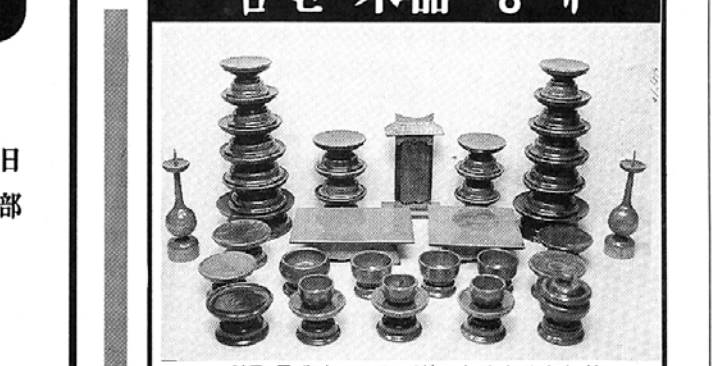
公 告

歸依三寶 하옵고,
大韓佛教曹溪宗 初代 宗正이신 薛石友 大宗師의 忌日 追慕祭를 다음과 같이 奉行합니다. 門設諸立와 四部 大衆 여러분께서는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日 時 : 2541年 6月 15日 (陰 5月 11日) 10時
◎ 場 所 : 八公山 桐華寺 鳳樓樓
※ 문의 및 연락처 : (053) 982-0101~2(동화사 종무소)
佛紀 2541年 6月 日

石 友 門 徒 會 門 丈 林 眞 際
八 公 山 桐 華 寺 住 持 金 無 空 合 掌

정성과 일이 담긴 남원 목기 공예



- 원목 통제기 358,000원(37피·상기 사진세트)
● 100년산 물푸레나무 288,000원

고찰 승려들의 식기, 바루 제작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로 다듬어진 목기입니다. 지리산 나무로 그 특유한 향기와 정품의 재목으로 품위있고 격조높게 만들어진 목기입니다. 특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물푸레나무를 재료로 모양과 색상이 좋고 내구성이 강하며 냄새가 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목기입니다.

남원 목기 공예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46-9
전화 : (062)511-9641
대표 임동주 합장